

서용선 SUH Yongsun



한국현대미술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서용선의 예술세계는 인간들의 삶의 세계 그리기로 압축된다. 작업의 모든 시각적 형상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이는 곧 인간의 삶을 조건 짓는 '사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역사와 신화, 자화상, 도시 인물과 풍경 등으로 나타난다. 주로 강렬한 색채와 표현적인 터치가 있는 한편 압축적이고 간결한 구조와 질서를 보여주는 화면은 역사 속 개인의 삶, 사회 시스템 특히 서울, 뉴욕, 베를린, 멜버른 등 지구촌 대도시 상황에 처해진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는 자신이 마주하는 삶의 세계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실존적 물음이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하여 국내외 수많은 주요 미술관들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단종' 시리즈, '한국 전쟁', <마고>신화 등을 비롯하여, 특히 도시 인물은 '소나무' 연작으로 눈길을 끌던 1980년대에 첫 개인전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출품작 <살아내기>, <보트>, <대화>는 작가 자신이 속해있고 목격하는 도시와 사회를 관찰한 풍경으로, 작가는 자화상을 비롯하여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도시의 길거리나 카페, 지하철에서 만나는 보편적인 인간들을 주요 모티프로 한다. 도시는 물론 독도, 철암프로젝트, 두만강프로젝트 등 역사적 장소와 삶에 관한 다채로운 작업들은 시간을 넘어 오늘의 우리 삶의 조건과 긴밀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회화와 더불어 입체 조각 및 콜라주 작업은 꾸준히 서용선 작업세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Suh Yongsun's art world encapsulates various outlooks of human life. His body of work, which has been considered significant in Korean contemporary art history, reflects his consistent interest in people and urban society that he executes in different genres such as history paintings, myths, self-portraits, and landscapes. They mainly consist of primary colors and expressive touches while maintaining a dense and concise structure and order. They show people's inner selves under the social system especially through the turmoil of modern history in large urban areas including Seoul, New York, Berlin, Melbourne. It is an existential question of being a human in the physical world one belongs to. Suh's works have been presented and collected by a numerous number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museums.

b.1951

EDUCATION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M.F.A)

197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B.F.A)

PUBLIC COLLECTIONS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대구 미술관, 수원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미술관, 고려대학교박물관, 충청대학교, OCI미술관, 모란미술관, 국방대학교박물관, 양평미술관, 인천아트플랫폼미술관, 포스코, 동서문학, 호주 모나쉬대학교, 싱가포르 우관중미술관갤러리,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미 외 다수.



서용선 The Boat, NY, 2020-2022, Acrylic on canvas, 76 x 61cm